

#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I\*\*\*

## The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Men and Women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朴美碩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 Park, Mee Sok. Ph.D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 II. 관련 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men and women in Seoul. The primary purposes were to describe perceived life quality of the middle-aged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selected variable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utilizing multistage area random sampling method. 524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SPSS PC+ statistical packag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life quality perceived by middle-aged was 4.7 out of 7 and relatively normally distributed.
2.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ere differed by occupation, family income, amount of saving, home ownership, religion, and residence.
3. The correlates of life quality were family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financial satisfaction, health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stress.
4. Among the variables family life satisfact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variable. Thirty six percent of the total variances were explained by family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stress, health satisfaction, and financial satisfaction.

\* 본 연구는 1995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비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 I. 서론

현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이룩된 사회의 발전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으나, 상대적으로 자원의 부족과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삶의 질이 국가의 새로운 궁극적인 목표로서 그 국가의 복지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사회적·행정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경제·행정 분야에서는 경제 성장을 삶의 질의 지표로 삼았고(김영섭, 1985), 사회심리학에서는 정서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생명 과학 분야에서는 생명의 연장 기간이나 신체 기능 상태로 정의하였다. 한편 가정학에서는 삶의 질을 인간이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주체로 보고 이러한 상호작용 가운데 얻는 만족도의 측면에서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Bubolz, Eicher, Everse, & Sontag, 1980; Park, 1992; 이기영, 1984).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동향을 보면, 과거에는 특히 주로 GNP와 같은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김경동·이홍구·신도철, 1983; 이기영, 1984; Bubolz et al., 1980). 따라서 최근에는 생활의 양적 측면이나 물질적·객관적 측면은 물론 질적·비물질적·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경제적 수준이 각기 다른 집단에 있어서 전반적인 만족감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Inglehart, 1978),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들이 주관적인 삶의 질의 인식에 별 설명력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이는 인간의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수준을 밝혀 주는 객관적 지표가 이러한 자원이 주는 만족도인 주관적 지표를

예측하는 데 있어 그 영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는 수출 천억불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국민소득 일만불 시대를 개막하였다. 나라의 정치 목표도 삶의 질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고, 이제 삶의 질은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삶의 질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삶의 질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예측할 수 있는 지 조사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인생 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역할이 많고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중년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중년기는 신체적 감퇴, 갱년기 등의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지만(Palmore & Luikart, 1972), 은퇴를 준비해야 하며, 또 가정과 사회에서의 다중적인 역할로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있는 시기이다. 또한 인구 구조의 면에서 볼 때, 40-59세 사이의 중년기는 전 인구의 2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1990), 이러한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여 봄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여러 편이 있으나 표집방법에 있어 임의 표집에 의한 연구로 대표성이 결여된 점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즉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인 삶의 질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사회 경제적,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 보고자 한다.

## II. 관련 연구 고찰

### 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언급이 잦아지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각 연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 목적,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어 삶의 질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정확한 일치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 지표(social indicator)의 개념이었다(Bauer, 1966). 즉 사회·경제적인 기록과 감시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생각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삶의 질이 인간의 삶의 질 또는 행복도 측정을 위한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김동일·심재용·강철인, 1981; 현오석, 1975).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는 삶의 질을 재산·건강 상태, 재정적 안녕과 같은 지표로 보았으나(Gastil, 1970; Morgan & Smith, 1969), 또 다른 학자들은 삶의 경험과 관심 영역에 대해서 개개인이 판단하고 느끼는 것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았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Andrews와 Withey(1976)는 삶의 질은 사람들이 결혼이나, 가족, 주거, 직업, 친구, 이웃, 건강과 같은 삶의 영역(domain)에 대해 표준, 열망, 가치와 목표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각하는 복지 수준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삶의 질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 그 자체보다는 그 자원이 주는 만족감에 따라 인간의 일반적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하였다(Campbell et al., 1976). 그들은 삶의 질을 열망(aspirations)과 성취(achievement)의 관계로 설명하였는데 인간이 희망하는 상황인 열망과 실제로 누리는 상황인 성취의 차이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은 인지적(cognitive) 차원과 정서적(affective) 차원의 두 부분을 포함하는 만족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Bubolz와 그의 동료들은 삶의 질에 대한 인간의 복지 정도나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의 복지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Bubolz et al., 1980).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Rice와 Tucker(1986)는 삶의 질을 인간이 느끼는 복지감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물질적인 성취나 비물질적인 성취를 통해 인간이 얻게 되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Young과 Longman(1983)은 현재의 삶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라고 정의함으로써 신체·정신적인 면 외에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환경을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개인, 타인, 사회 체계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사람, 장소, 시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삶의 질을 연구한 김경동과 그의 동료들은 삶의 질은 개인의 가치와 삶의 목표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사람들 스스로 경험하는 복지와 즐거움으로 정의하였다(김경동·이흥구·신도철, 1980). 그들은 삶의 질을 행복감이나 즐긴다는 것과 같은 즐거운 삶(hedonic goodness)의 측면과 판단적이고 인지적인 경험이 내포된 복된 삶인 복지(welfare goodness)의 두 측면에서 측정하였는데, 행복감의 수준과 삶을 즐기는 빈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즐거운 삶을 측정하였고, 복지의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2개 영역-주택, 이웃, 건강, 금전 사정, 혼인 생활, 자녀 양육, 일, 집안일, 친구 우애, 여가 시간, 교육, 정부-을 선정하여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 삶의 질 지표를 만들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삶의 질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인이 현 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느낌이 강조되므로 삶의 질은 행복, 만족, 긍정적 정서, 사기 등의 개념이 내포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삶의 질은 만족, 사기, 행복이란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Braun, 1977; Diener, 1984), 근래에 이르러 삶의 질에 관한 여러 연구는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밝힘으로써 주관적 만족감의 측면이 더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인간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 전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 2.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선행 연구들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은 연령, 성별, 교육, 직업, 수입, 결혼 상태, 종교, 인종, 건강 등의 객관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을 보면 연구자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 행해진 연구들은 젊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으며(Bradburn & Caplovitz, 1965; Gurin, Veroff, & Field, 1960), 그 이후의 몇몇 연구들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Andrews & Withey, 1976; Spreitzer & Snyder, 1974). 한편 연령과 삶의 질간에는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힌 논문도 있다(Braun, 1977; Campbell et al., 1976; Cantril, 1965; Medley, 1980). Clemente와 Sauer(1976)에 의하면 중년층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하재구(1986)도 중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한편 삶의 질은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Goodstein, Zatra, & Goodhart, 1982; Olsen, 1980; Toseland & Rasch, 1979-1980). 그러나 성별을 인생 주기와 결부시킨 연구를 보면 중년기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의 경우보다 높다고 하는 상반된 보고도 있다(Glenn, 1975; Andrews & Withey, 1976). 또 여자인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 남자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preitzer & Snyder, 1974; Medley, 1980). 우리나라의 연구 중 성별에 따른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경우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가정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김행자, 1974; 김명자 1982). 반면 하재구(1986)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렇듯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은 연구자에 따라 상호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의 경우, 삶의 질에 있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Palmore & Luikart, 1972). 또한 소득과 같은 다른 요인이 통제되면 교육은 의미가 없음을 보

여준다(Spreitzer & Snyder, 1974; Toseland & Rasch, 1979-1980).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Campbell과 그의 동료의 연구(1976)를 보면 교육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육이 인적 자원을 증대시켜 다양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 연구는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하재구, 1986).

직업은 사회·경제 상태의 주요 구성 요인의 하나로 인간의 태도와 활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복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Bradburn(1969)은 실업이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침을 파악하여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직업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건강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보면 질병을 앓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 삶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Edwards & Klemmack, 1973; Larson, 1978; Park, 1992; Near, Rice, & Hunt, 1973; Spreitzer & Snyder, 1974, Toseland & Rasch, 1979-1980). 이와 같은 결과는 Park(1992)의 연구에서도 재확인 되었는데, 건강 수준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지표가 객관적인 지표보다 설명력이 높음을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다(Ackerman & Paolucci, 1983; Berry & Williams, 1987; Hafstrom & Dunsing, 1973; Park, 1992). 즉 재정 만족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데, 재정 만족도는 소득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소득 충족 정도나 자원에 대한 만족도 같은 주관적 지표로 측정될 수 있다. 중년기 부부의 삶의 질을 분석한 Park(1992)의 연구 결과 주관적인 지표가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설명력 또한 객관적인 지표인 소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avis와 Helmick(1985)은 소비 수준 만족도, 재산 만족도, 재정 안정도 등을 주관적 지표로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가족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

된 결과를 보여주었다(Andrews & Withey, 1976; Bubolz et al., 1980; Bubolz, Walker, & Park, 1989; Campbell, 1981; Campbell et al., 1976; Park, 1992; Walker, Bubolz, & Park, 1991). 즉 가족생활 만족도는 결혼 생활을 통해 갖게 되는 만족도로 삶의 질을 예측하는 강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가와 삶의 질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를 보면, 여가의 다양성이나 여가 활동 같은 여가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여가의 만족 정도가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Kelly, Steinkamp, & Kelly, 1987).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plan, 1983; Holmes & Rahe, 1967; Perlin, Menaghan, Lieberman, & Mullan, 1981; Seyle, 1956). 최근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으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Park(1992)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인들이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객관적 요인중 연령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요인은 물론 주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 서울에 거주하는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상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우리나라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2〉 우리 나라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은 객관적 요인(사회경제학적,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

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삶의 질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 변인은 무엇이며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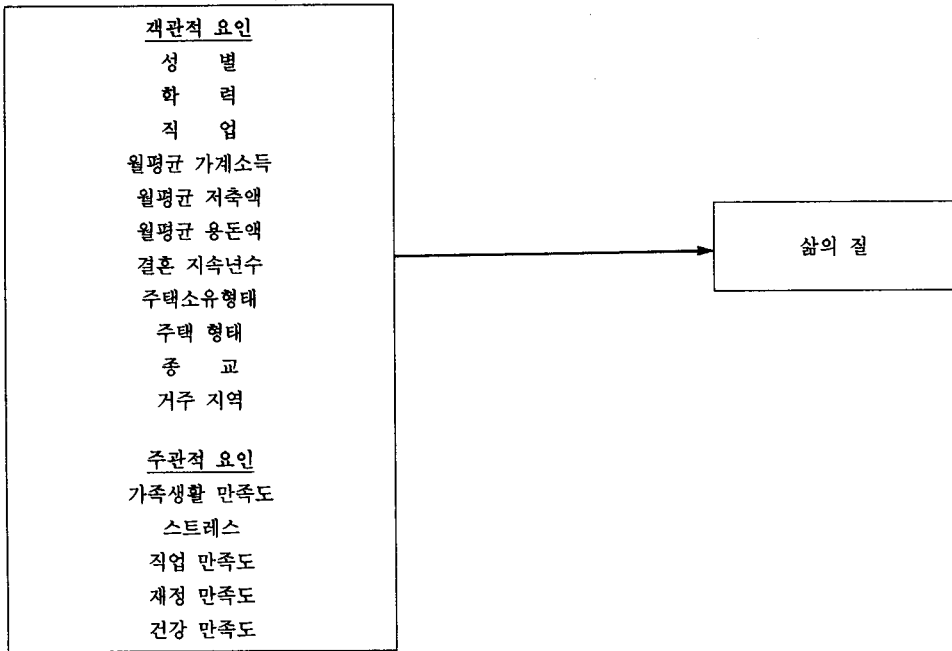
위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2. 조사도구의 작성

본 조사를 위하여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적 사항을 알기 위한 사회 인구학적 문항과 삶 전반에 걸친 만족도, 가족생활 만족도, 직업 만족도, 경제 만족도, 건강 만족도, 여가 만족도 및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삶의 질은 Campbell과 그의 동료(1976)들이 만든 지표를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KQOL: Korean Quality of Life). 따라서 KQOL은 개인이 삶 전반에 걸쳐 느끼는 만족감 수준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지겹다-흥미롭다, 슬프다-즐겁다, 가치없다-가치있다, 공허하다-충만하다, 비관적이다-희망적이다, 보상감이 없다-보상감이 있다, 운이 나쁘다-운이 좋다는 7가지 어의차이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족생활 만족도는 Schumn과 그의 동료의 켄사스 가족생활만족 척도(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Schumn, McCollum, Bugaighis, Jurich, & Bollman, 1986). 이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 전체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와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지를 묻고 있다. 직업 만족도는 직업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롯하여 일에 관한 흥미, 보수, 안정성, 승진의 기회 등의 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정 만족도는 소득에 관한 충족 정도, 가계의 총수입의 변화, 가계의 재정적 상황과 저축과 투자의 만족도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건강 만족도는 자신의 건강에 관한 주관적 생각을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에서 '매우 건강하



〈그림 1〉 연구 모형

다' 까지의 7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여가 생활에 관한 여가 만족도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여가 생활 만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표집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여성과 남성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 이상의 막내 자녀를 두고, 주부의 연령이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가정을 모집단으로 하여 남편이나 주부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추출은 다단계 지역 추출법(Multistage Area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였는데 먼저 서울시의 각 지역별 인구 수에 의한 층화를 한 후 지역별 실사 지점을 추출하였다. 이때 실사 지점의 추출은 마케팅 조사 전문 회사의 '표본추출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600명의 표본을 위한 통·반 단위의 실사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실사 지역 목록에 따라 조사원이 각 실사 지점의 통·반에서 7가구씩 체계적으로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는 1995년 7월5일부터 3일간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는 같은 해 7월22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원으로는 사회조사 방법론의 과목을 수강한 가정관리학과 2, 3학년 15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실사 지역을 방문 조사하도록 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554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 기재를 제외한 524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기술 통계법을 이용하여 실태분석을 하였으며,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 사후검증인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및 t-검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 1〉은 본 연구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총 524명의 응답자 중 33%인 175명이 남성이었고 67%에 해당하는 349명이 여성 응답자였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보면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2.4%가 고졸 수준이었으며 다음이 대졸 이상의 응답자로 31.7%, 중학교 졸업이 18.5%였고, 국졸 이하인 응답자는 7.3%였다. 응답자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여성 응답자가 많은 관계로 무직, 가정주부가 많은 분포(47%)를 보이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여러 직업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직업 분포를 보면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사무직 18.3%, 자영업상공업 17.7%, 그리고 관리직 16%의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2). 여성의 경우 가정주부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서비스직이 11.7%, 다음이 기능직으로 7.4%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응답자의 약 11%와 여성 응답자의 약 4%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수입 면에서는 38%의 가구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며, 29%의 가구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또 16%의 가구가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로 생활하였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와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각각 8%였다.

월평균 저축액수를 보면 응답 가정의 50퍼센트가 10만원에서 60만원 미만의 저축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80만원 이상의 저축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21%나 되었다. 응답자 자신의 월평균 용돈액수에 관하여는 약 이분의 일을 밀도는 응답자들이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여성 응답자들 보다 남성 응답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응답자들의 가족형태를 보면 핵가족이 84%를 차지하였고 절반정도가 4인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년수를 보면 평균은 23년으로 16년 이상 25

년 이하의 경우가 응답자의 55%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불교 29%, 천주교, 15%, 종교가 없는 경우가 22%였다.

주택 소유 형태를 보면 응답자의 78%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하기는 하나 현재는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의 84%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7%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38%, 연립 주택과 상가 주택은 각각 12%와 2%로 나타났는데 이는 95년 인구 센서스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 센서스결과를 보면 주택유형별 구성비에 있어 단독주택이 47.6%, 아파트가 37.4% 연립주택과 가타주택이 15%로 나타났다(중앙일보, 1996년 3월 31일자).

##### 2.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

〈표 3〉은 우리 나라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일반적 경향을 요약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우리 나라 중년기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 4.70이고, 응답자의 50퍼센트가 4.75-7.0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중간점인 4점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선행 연구에서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쪽으로 두드러지게 편포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Campbell과 그의 동료의 연구(1976)에서는 미국인의 61퍼센트가 7점 척도 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2개의 범주에 응답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치우치긴 했으나 비교적 고르게 잘 분포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삶의 질 척도(KQOL)의 신뢰도는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년기의 삶의 질에 관한 일반적 수준을 해석해 볼 때 우리 나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기혼 남녀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공보처가 실시한 삶의 질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도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의 의식 조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 = 524)

변인 (평균)	구분	빈도	백분율 (%)	변인 (평균)	구분	빈도	백분율 (%)		
성별	남	175	33.4	주택소유 형태	자 가	406	77.5		
	여	349	66.6		전 세	61	11.6		
학력	국졸 이하	38	7.3		월 세	21	4.0		
	중졸 이하	97	18.5		집소유, 전세나월세	36	6.9		
	고졸 이하	222	42.4		주택 형태	단독 주택	246	46.9	
	대졸 이상	166	31.7			아파트	200	38.2	
	무응답	1	0.2			연립 주택	65	12.4	
			상가 주택			13	2.4		
직업	본 인	무직·가정주부	245		46.8	종교	기독교	172	32.8
		노무직	25		4.8		천주교	80	15.3
		기능직	46	8.8	불교		151	28.8	
		판매·서비스직	55	10.5	없음		114	21.8	
		사무직	40	7.6	기타		7	1.3	
		자영 상공업	48	9.2	월평균 가계소득	10만원 미만	42	8.0	
		관리직	31	5.9		100만-200만원 미만	201	38.4	
	전문직	33	6.3	200만-300만원 미만		154	29.4		
	무응답	1	0.2	300만-400만원 미만		83	15.8		
	배 우 자	무직·가정주부	149	28.4	400만원 이상	44	8.4		
		노무직	29	5.6	월평균 저축액	10만원 미만	63	12.0	
		기능직	38	7.3		10만-30만원 미만	115	21.9	
		판매·서비스직	30	5.7		30만-60만원 미만	150	28.6	
		사무직	92	17.6		60만-80만원 미만	86	16.4	
		자영 상공업	64	12.2	80만원 이상	110	21.0		
관리직		64	12.2	월평균 용돈액	10만원 미만	128	24.4		
전문직		41	7.8		10만-30만원 미만	256	48.9		
무응답	17	3.3	30만-50만원 미만		67	12.8			
			50만원 이상		54	10.3			
			무응답		19	3.6			
가족형태	핵가족	438	83.6	결혼 지속년수	15년 이하	65	12.4		
	확대가족	86	16.4		16년이상-20년이하	136	26.0		
결혼 지속년수	15년 이하	65	12.4		21년이상-25년이하	152	29.0		
	16년이상-20년이하	136	26.0		26년이상-30년이하	103	19.7		
	21년이상-25년이하	152	29.0		31년 이상	64	12.2		
	26년이상-30년이하	103	19.7		무응답	1	0.2		
	31년 이상	64	12.2						
	무응답	1	0.2						

에 따르면, 가장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100점으로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 평균 56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공보처, 1995).

### 3. 객관적 요인에 따른 삶의 질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ANOVA)



〈표 2〉 성별 직업 분포도

(n = 524)

남	빈도	백분율(%)	여	빈도	백분율(%)
무 직	15	8.6	가정주부	230	65.9
노무직	12	6.9	노무직	10	2.9
기능직	20	11.4	기능직	26	7.4
판매,서비스직	14	8.0	판매,서비스직	41	11.7
사무직	32	18.3	사무직	8	2.3
자영 상공업	31	17.7	자영 상공업	17	4.9
관리직	28	16.0	관리직	3	0.9
전문직	20	11.4	전문직	13	3.7
무응답	3	1.7	무응답	1	0.3
계	175	100.0	계	349	100.0

가정주부(4.68), 관리직(4.74) 사무직(4.86)의 순으로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직업 지위 수준이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경동, 이흥구, 신도철, 1980; 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직업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며, 자아 발견과 자기만족의 근원이 되므로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구성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특히 중년기에 있어서의 직업은 소득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직장을 통하여 자기 개발과 자아실현을 통한 성취감의 절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은 또한 가정의 소득 수준과 저축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p < .001$ ). 월평균 가계소득의 경우,

〈표 3〉 삶의 질 척도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중앙값
삶에 대한 감정 : 지겹다 - 흥미롭다	4.28	1.47	4.00
슬프다 - 즐겁다	4.70	1.47	5.00
공허하다 - 가치있다	5.16	1.56	5.00
비관적이다 - 낙관적이다	5.19	1.53	5.00
보상감이 없다 - 보상감이 있다	4.62	1.61	5.00
운이 나쁘다 - 운이 좋다	4.43	1.62	4.00
삶 전반에 관한 만족도	4.62	1.32	5.00
삶의 질	4.70	1.20	4.75

Cronbach's  $\alpha = .91$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서울시의 중년기 기혼 남녀의 삶의 질은 본인의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저축액, 주택 소유 형태, 종교 및 주거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인의 직업에 따라 중년기 삶의 질 수준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전문적인 경우 5.34로 그 수준이 가장 높았고, 노무직 종사자인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3.94), 판매·서비스직(4.61), 자영상공업(4.61), 기능직(4.67),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의 경우 5.06으로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0만원-400만원 집단이 4.92, 200만원-300만원의 집단이 4.82였으며 100만원-200만원 집단과 100만원 미만의 집단의 경우는 각각 4.51과 4.31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소득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사후검증 결과로도 확인되었는데, 소득이 높을 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수입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Andrews & Withey, 1976; Clemente & Sauer, 1976; Campbell et al., 1976; Larson, 1978). 그러나 소득은 극도로 낮은 경우에만

〈표 4〉 객관적 요인에 따른 삶의 질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값	D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값	D																				
												D																			
성별	남 여	4.69	1.19	.07 <sup>a)</sup>		결혼 지속년수	15년 이하	4.64	1.37	.93																					
		4.70	1.20				16년 이상-20년 이하	4.83	1.11			21년 이상-25년 이하	4.74	1.12	26년 이상-30년 이하	4.54	1.27	31년 이상	4.65	1.27											
학력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4.49	1.02	.93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80	1.20	5.76 <sup>***</sup>																					
		4.63	1.22				전세	4.14	1.07			월세	4.49	1.11	전세나전세	4.64	1.18														
직업	무직·가정주부 노동직 기능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자영업 자영업 관리직 전문직	4.79	1.21	3.13 <sup>**</sup>		주택 형태	단독주택	4.78	1.09	1.83																					
		4.68	1.18				아파트	4.65	1.21			연립주택	4.45	1.41	상가주택	5.06	1.60														
직업	무직·가정주부 노동직 기능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자영업 자영업 관리직 전문직	4.59	1.22	.65		종교	기독교	4.80	1.15	2.76 <sup>*</sup>																					
		4.66	.67				천주교	4.56	1.21			불교	4.78	1.20	없음	4.47	1.23														
월평균 가계소득	배우자	4.74	1.22	.65		거주 지역	기타	5.09	.90	1.61 <sup>*</sup>																					
		4.60	1.40				서울	4.14	1.30			부산	4.77	1.03	대구	4.77	1.21	인천	4.63	1.21	대전	4.42	.57	충청	4.86	1.18	전남	5.04	1.03	전북	5.24
월평균 저축액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4.31	1.07	4.56 <sup>**</sup>	C	거주 지역	수도권	4.76	1.21	1.61 <sup>*</sup>																					
		4.52	1.21				비수도권	4.41	1.08			서울	4.41	1.08	부산	4.41	1.08	대구	4.41	1.08	인천	4.41	1.08	대전	4.41	1.08	충청	4.41	1.08	전남	4.41
월평균 용돈액	10만원 미만 10만-30만원 미만 30만-60만원 미만 60만-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4.26	1.28	6.36 <sup>***</sup>	C	거주 지역	수도권	4.46	1.66	1.61 <sup>*</sup>																					
		4.59	1.21				비수도권	4.34	1.44			서울	4.34	1.44	부산	4.34	1.44	대구	4.34	1.44	인천	4.34	1.44	대전	4.34	1.44	충청	4.34	1.44	전남	4.34
월평균 용돈액	10만원 미만 10만-30만원 미만 30만-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4.64	1.04	1.03		거주 지역	수도권	4.64	1.04	1.03																					
		4.64	1.23				비수도권	4.64	1.23			서울	4.64	1.23	부산	4.64	1.23	대구	4.64	1.23	인천	4.64	1.23	대전	4.64	1.23	충청	4.64	1.23	전남	4.64

a) t 값 \* p < .05 \*\* p < .01 \*\*\* p < .001

그 영향력이 크며,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가능한 수준에서는 별 영향력이 없음을 Freedman은 주장하였으며(1978),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인의 삶의 질을 연구한 Campbell과 그의 동료에 의한 연구(1976)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월평균 저축액의 경우 저축액수가 큰 집단일수록 그들이 인지하는 삶의 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사후검증 결과로도 알 수 있는데, 월평균 10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는 집단의 삶의 질이 가장 낮았으며(4.26), 80만원 이상의 저축을 하는 경우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5.13). 삶의 질에 있어 저축의 중요성은 최근 공보처가 실시한 삶의 질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 우리 나라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축과 투자로 장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보처, 1995).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역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사후검증 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4.80).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문화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주택의 소유가 재산 마련의 기본이라는 가치관에 따라 가계의 경제수준과도 관련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중년기의 삶의 질은 종교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종교를 보면 기타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종교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사후검증의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종교의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의 선행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종교가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높다고 한 연구(Hadaway, 1978)가 있는 한편 Campbell과 그의 동료(1976)들은 종교인의 경우 비종교인보다 삶의 질이 낮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시민의 삶의 질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p < .05$ ). 거주 지역의 경우 광진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서초구, 구로구가 사후검증결과 삶의 질이 높

은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선행 연구가 아직 없으므로 앞으로 연구가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 서울에 거주하는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은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저축액수, 주택 소유 형태, 종교, 거주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학력, 배우자 직업, 가족 형태, 결혼지속년수, 주택 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4. 삶의 질의 예측변인과 변인들간의 설명력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주요 변인은 무엇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기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다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배경 변인 중 소득과 월평균 저축액이 재정 만족도와 다중공선성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r = .4$  에서  $.5$ 사이). 선행 연구 결과 주관적 지표가 객관적 지표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재정 만족도를 분석에 포함시키고 객관적 지표인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저축액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밖에 오차의 분포와 오차항의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test의 값이 2.04로 오차항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항의 분산의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데이터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에서 보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족생활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beta = .32$ ),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 $\beta = -.20$ ), 직업 만족도( $\beta = .18$ ), 건강 만족도( $\beta = .12$ ), 재정 만족도( $\beta = .08$ )순이었다. 즉, 가족생활 만족도가 높고,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년기 삶의 질은 높아지며,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Andrews & Withey, Campbell et al., 1972; Bubolz et al., 1989;

Park, 1992; Rice, 1979). 특히 가족생활 만족도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는데(Bubolz et al., 1980; Bubolz et al., 1989; Park, 1992; Walker et al., 1990, 1991), 이혼율이 높고 가족의 유대감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렇듯 결과가 일치함은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표 5〉 삶의 질의 단계적 중회귀분석<sup>a)</sup>

	B	$\beta$	t <sup>b)</sup>	
가족생활 만족도	.35	.32	7.93***	F = 55.45*** R <sup>2</sup> = .36 D-W test = 2.04
스트레스	-.18	.20	-5.11***	
직업 만족도	.17	.18	4.45***	
건강 만족도	.09	.12	3.18**	
재정 만족도	.12	.08	1.97*	
상수(constant)	2.14		6.43***	

a) 회귀 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만을 나타내고 있음.

b) \* p<.05 \*\* p<.01 \*\*\* p<.001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이상의 다섯 가지 변인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변인보다는 주관적인 변인들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ckerman & Paolucci, 1983; Hafstrom & Dunsing, 1973; Bubolz et al., 1989). 즉 단계적 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가족생활 만족도의 설명력이 25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변인에 의해 11퍼센트가 추가되어 이들은 전체 변량의 36퍼센트를 설명해 주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중년기 성인 524명을 다 단계층화표집하여 중년기의 삶의 질 수준과 관련 변인 및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 혹은 주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이 판단하는 삶 전반에 걸친 만족도와 삶에 대해 지각하는 주관적 감정 상태로 보고 주관적인 측정을 하였다. 이는 심리적인

만족이 안녕 상태의 일반적인 느낌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만족도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삶의 질을 생애 주기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작용하고 어느 주기에 있어 그 수준이 절정이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우리는 아직 명료한 해답을 모른다. 다만 중년기가 발달 단계상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은 물론 노후 대비 등을 준비해야 하는 한편 신체적으로는 갱년기 등의 신체 감퇴를 겪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주관적인 만족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년기는 아직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시기이므로 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 상태는 가정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삶의 질에 관한 생애 주기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는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중년기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양하나(Palmore & Luikart, 1972; Duvall, 1971; 김명자, 1989), 본 연구는 중년기를 막내 자녀가 사춘기 이상인 40세 이상 59세로 보고 그들의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중년기의 삶의 질은 중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교적 고된 분포를 보였다. 삶의 질은 응답자의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저축액, 주택 소유 형태, 종교 거주 지역 등의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주관적 지표와 함께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상쇄되었다. 즉, 중년기 삶의 질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족생활 만족도였으며, 다음이 직업 만족도, 스트레스, 건강 만족도, 재정 만족도의 순이었고, 객관적인 지표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인 지표가 객관적인 지표보다 삶의 질의 예측 변인으로서의 중요함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성인이 인지하고 있는 삶의 질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점이다.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확률표본추출법을 이용한 표집이 필수 요건인데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 지역 추출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를 서울시의 중년기 성인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한국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KQOL)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삶의 질을 인간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 전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에 대한 평가로 보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 척도를 구성하였는데 연구결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먼저 정책을 위한 제언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가족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복지 정책의 수립이나, 의료보험의 서비스의 개선 또는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 만족도 증대, 물가 안정을 통한 재정 만족도의 증대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삶의 질 이론의 지속적인 정립을 위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인 연구에 있어 비확률표집에 의한 연구 결과를 모수통계기법으로 추론하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타당도에 무리가 있으므로 가정학의 이론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 표집방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층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농촌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지역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년기 삶의 질에 관한 이론 구축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삶의 질 척도(KQOL)의 타당도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중년기가 아닌 다른 연령층을 모집단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인간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발전해 나간다. 앞으로의 미래는 그 속도가 가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와 가치관

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공보처(1995).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공보처. 1995.
- 2) 김영섭(1985). 사회 개발 계획론. 서울 : 법문사.
- 3) 김경동 · 이홍구 · 신도철(1983).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삶의 질. 이만갑 교수 회갑기념논총. 한국 사회의 전통과 변화. 461-499.
- 4) 김동일 · 심재용 · 강철인(1981).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 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서울 : 한국 농촌경제 연구소.
- 5)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6)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행자(1974). 서울 시내 일부 노인들의 소외 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4(2). 32-43.
- 8) 노유자(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35-59.
- 10) 통계청(1990). 인구 주택 총 조사 보고서. 통계청. 1990.
- 11) 하재구(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 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현오석(1975).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Ackerman, N. & Paolucci, B.(1983). Objective and subjective income adequacy :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life quality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25-48.
- 14) Andrews, F.M. & With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 Plenum

- Press.
- 15) Bauer, R.A.(1966).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ass : M.I.T. Press.
  - 16) Berry, R. & Williams, F.(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07-116.
  - 17) Bradburn, N.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 18) Bradburn, N.M. & Caplovitz, D.(1965). *Reports on happiness*. Chicago : Aldine.
  - 19) Braun, P.M.W.(1977).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ocation in the social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79).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8. 2351A.
  - 20) Bubolz, M.M., Eicher, J.B., Evers, S.J., & Sontag, M.S.(1980).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 103-136.
  - 21) Bubolz, M.M., Walker, R., & Park, M.S.(1989). Family and economic stressors and quality of life : A rural-urban comparison. *Sociological Abstracts*. North Central Sociological Association.
  - 22) Campbell. A.(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 McGraw-Hill.
  - 23)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24) Cantril, H.(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Jersey : Rutgers University Press.
  - 25) Caplan, R.D.(1983). Person environment fit : Past, present, and future. In C. Cooper(Eds.). *Stress research : Directions for the 1980's*. 35-78. London : Wiley.
  - 26) Clemente, F. & Sauer, W.J.(1976). Life satisfactio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54. 621-631.
  - 27) Davis, E.P. & Helmick, S.(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 123-131.
  - 28) Diener, E.C.(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29) Duvall, E.M. & Miller B.C.(1985). *Marriage and the family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 Row.
  - 30) Edwards, N.J. & Klemmack, D.L.(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497-502.
  - 31) Gastil, R.(1970). Social indicator and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0. 596-601.
  - 32) Glenn, N.D.(1975). The contribution of marriage to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594-600.
  - 33) Goodstein, J., Zautra, A., & Goodhart, D.(1982). A test of the utility of social indicators for behavioral health service plann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 273-295.
  - 34) Gurin, G., Veroff, J., & Field, S.(1960). *American view their mental health*. New York : Basic Books.
  - 35) Hadaway, C.K.(1978). Life satisfaction and religion : An analysis. *Social Forces* 57. 636-643.
  - 36) Hafstrom, J. & Dunsing, M.(1973). Level of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2).
  - 37) Inglehart, R. & Rabier, J.R.(1986). Aspiration adapt to situation-But why are Belgians so much happier than the French? In F.M. Andrews(Eds.).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Ann Arbor :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56.
  - 38) Holmes, T.H. & Rahe, R.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39) Kelly, J.R., Steinkamp, M.W., & Kelly, J.R.(1987).

- Later-life satisfaction : Does leisure contribut?.  
*Leisure Science* 9. 190-200
- 40) Larson, R.(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25.
- 41) Medley, M.L.(1980). Life satisfaction across four stages of adult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1. 193-209.
- 42) Morgan, J.N. & Smith, J.D.(1969). Measures of economic well-offness and their correl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 912-926.
- 43) Near, J.P., Rice, R.W., & Hunt, R.G.(1978). Work and extra-work correlates of life and job satisfa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1. 248-264.
- 44) Olsen, J.K.(1980). The effect of change in activity in voluntary associations on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60 and over who have been active through tim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1979).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40, 5211A.
- 45) Palmore, E. & Luikart, C.(1972).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 68-80.
- 46) Park, M. S. (1992). *Ecological modeling of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47) Perlin, L.I., Menaghan, E.G., Lieberman, M.A., & Mullan, J.T.(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 68-80.
- 48) Rice, A.S. & Tucker, S.M.(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49) Schum, W., McCollum, E., Bugaiahis, M., Jurich, A., & Bollman, S.(1986).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 in regional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58. 975-980.
- 50) Seyle(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 McGraw-Hill.
- 51) Spreitzer, E. & Snyder, E.E.(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454-458.
- 52) Toseland, R. & Rasch, J.(1979-1980).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 An AID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 203-211.
- 53) Walker, R., Bubolz, M.H., & Park, M.S.(1991). Contribution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to quality of family life of mid-life women and men. In J. Bauer(Eds.). *Family economic well-being in the next century challenges, changes, continuity, proceedings of 1991 conference workshop*. Sponsored by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Sectio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Meeting. Minneapolis. MN. 167-179.
- 54) Walker, R., Park, M.S., Bubolz, M.H., & Keefe, D.(1990). Quality of life of middle aged women : Effects of family resources and demands. In M. Carskey(Eds.). *Proceedings of 36th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Council of Consumer Interests*. Columbia, Mo : ACCI. 12-17.